

대행 스님

나 하나를 버린다면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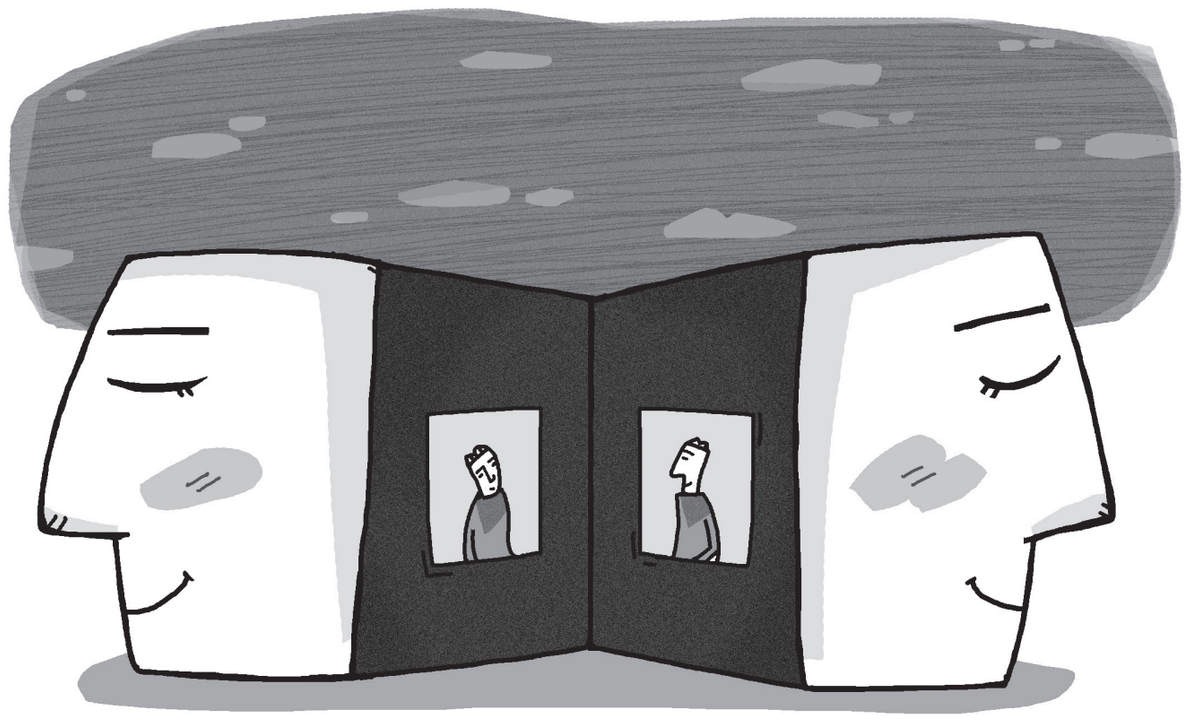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또 이렇게 만났군요. 우리 이 머리가 하나의 해골로 구성이 됐지만 너 나가 있듯이 대뇌 속에 반쪽씩 나누어져서 들어 있다고 봅니다. 우측은 잠재의식 자체로서 아주 광대무변한 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대뇌의 우측이라고 봅니다. 또 좌측에는 현재 50% 현상 생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애비 묘지와 자식 묘지가 있는데 양면이 구멍이 뚫렸느니라. 그런데 자식이 애비한테 가면 애비로 하나가 되고, 애비가 자식한테로 오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니 그 연고는 무슨 연고냐.' 하고 묻더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젊었을 때에 그저 무조건 길을 걸을 때에 있었던 얘깁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다 부처 될 수 있는 가망성이 99%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대로 여여하다고 그러는 거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대뇌의 안에 있는 우측 좌측이 한데 계합이 돼야만이 여여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계합이 되지 않는다면 여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오관을 통해서 마음으로 드는 것은 바로 좌측으로 들어서, 우측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니 그것이 거기 통과됩니다. 그러나 그건 무시하고 여러분이 이 대뇌에서 지금 사용하는 50%만 가지고 항상 들이고 내고 하니까 아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미처 능력이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려고 기계 하나를 사서 들여놓는다면 그 속이 어떻게 조립이 됐고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를 알아야, 겉은 아무렇게나 생겼어도 '아, 이건 겉만 손을 본다면 능히 쓰고도 남고 이 기계는 참 좋구나!' 하고 싼값에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죽을 말끔히 해 놓고 속은 망가진 거를 고쳐서 갖다 놓고 팔려고 그런다면 거죽만 보고 속은 못 보니까 그건 여러분이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흡수해서 들이는 것이 이 대뇌의 우측에 잠재해 있는 그 모든 광대무변한 뜻과 법이 거기에서 송두리째 계합이 되면 나온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러면 안 나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시계추와 같이 항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마는 여러분이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용의 능력은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뇌에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먼저냐, (오른쪽 머리와 왼쪽 머리를 차례로 짚어 보이시며) 이게 먼저냐' 해도, 이건 먼저 될 게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순환되고, 똑같이 대뇌에서부터 소뇌로 이렇게 해서 사대(四大)로 다 통신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면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음식 먹어 보지 못한 건 생각조차도 못 하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툭겨 가면, 여러분은 그때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뇌의 좌측에서는 오관을 통해서 들이는 거를 우측에 항상 맡겨 놓는다. 내는 것도 맡긴다. 그럼 대뇌의 반쪽씩 있는 데다가 다 맡긴다면 자(子)가, 즉 말하자면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모든 걸 달랠 때도 "아버지!" 또 들일 때도 "아버지!" 하고서 말을 하고 말을 할 때도 "아버지!" 다 자라기 이전에는 아들은 아버지한테 반드시 기댑니다. 아버지한테 기대지, 부모한테 기대지 않으면 어디다 기댑니까? 자기가 장성할 때까지는 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직을 해서 나가고 장가들 때까지는, 시집갈 때까지는 부모를 믿고 따라야죠. 자기가 혼자 하는 것도 있겠죠, 이게 옳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나 이것이 생각해 봐서 잘 안될 때는 아버지한테 상의를 해야죠? 그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어떠한 것은 '이것이 남과 내가 다 뭐, 그렇게 구차하게 악하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고 그냥 합니다. 그러나 정히 안 될 때는 고심을 하면서 부모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죠. 이러한 거와 같이 이 대뇌에서 좌측 뇌는 우측 뇌로 다 맡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마음이 나와서 그러느냐? 마음은 마음대로 나와서, 나오게 되면 벌써 뇌로 가죠? 뇌로 가서 이쪽으로 다 맡겨 놓으면, 맡겨 놓으면 거기서 돌아서 다시 좌측으로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불리한 거를 맡겼는데 불리하지 않게끔 바깥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용광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번 굴려서, 속이 상하더라도 한번 거기 맡겨서 굴려서 내놓으면 좋은 말로 나갈 수가 있다. 그냥 곧이곧대로 속상한 대로 여기 대뇌에 들어갈 사이도 없이 여기서 곧바로 그냥 쏴 대면 그건 거기까지, 지혜로운 그 능력이 거기까지 밝게 못 비춰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을 이끌어 이렇게 같이 항상 도반으로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 못 하고 있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돈을 받고 사는 거라야만 하고, 사는 거를 주면 참 고맙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물건을, 먹을 거를 줬다면 고맙다고 하고 또 거기 더 좀 붙여 돈을 얼마를 보너스라도 줬다 하면 참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공기나 물이나 불이나 흙이나 이런 거 보고는, 바람 같은 거 보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공기를 사서 먹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병원도 어디 고장만 나면 가서 집을 팔아다가라도 갖다가 디밀곤 수술을 하고 야단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주상 보시로 그대로 지금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거는 어디다 감사해야 하느냐? 내 주인공입니다. 나도 지수화풍이 근본입니다. 일체 만물이 다 지수화풍이 근본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수화풍 아니면 지금 어떻게 사시렵니까? 지금 지수화풍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보다도 여러분이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고마워해야 하는 거를 모르고 저 사람한테 절을 하고 저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여러분이 나한테 절을 한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시계추와 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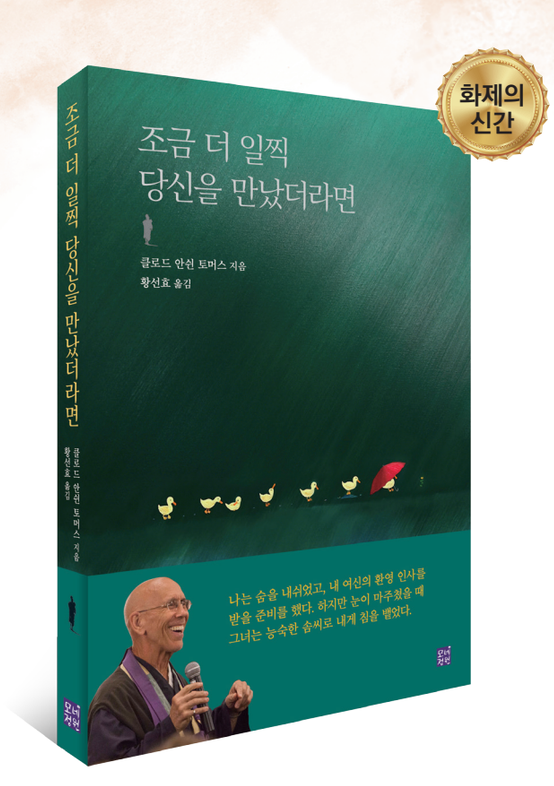
이리로 가도 아니고, 저리로 가도 아닙니다. 이리로 갔는가 하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갔는가 하면 벌써 이리로 갔고, 어떻게 그것을 너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습이 각각이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둘이 아니게 돌아가지마는 네가 있고 내가 있다. 네가 있고 내가 있지만 둘 아니게 돌아가는 그 소식을 안다면 여러분은 작아도 받아들일 수 있고, 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벌레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벽도 터지고 봇장도 터지고 사방이 다 터집니다. 우리 태극기에도 있습니다. 천지가 있는가 하면 천, 지, 인이 있어요. 그래서 삼, 사, 오, 육까지 이렇게 점을 찍어 놨죠. 이게 세상을 말한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병원에서 "심장만 뛰지 목석처럼 이 정신이 깨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 노릇을 못하고 산다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죠.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괴롭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또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심장이 뛰는 것도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 충만히 돌아가기 때문에 삼계(三界)를 돌고 있습니다. 심장으로부터, 뇌로부터, 저 발끝으로. 지금 여러분이 딛고 다니는 것도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땅 이 자체

☞ 22면으로 계속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